ECONOMY

2025년 9월 19일 금요일

# 광주신세계, 협력업체 상생 프로그램 '눈에띄네'

## ESG 지표 개선 지원…사회적 책임 등 피드백

## 스폴골프·바리에 온라인 매출 향상 등 효과

㈜광주신세계의 협력업체 지원 상생 프로그램이 ESG 경영지표 향상 등 실효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광주신세계에 따르면 지난 2023년부터 협력업체들의 ESG 관련 지표 개선을 돕는 프로그램인 'ESG 지원사업'에 착수했다.

ESG 경영에 관심은 있지만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회사들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광주신세계는 선정된 업체가 얼마나 친환경에 힘썼는지, 사회적 책임은 다하고 있는지 등을 단계적으로 점검해 피드백을 제공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실적을 개선한 업체는 판로 확대를 위한 온라인 상세페이지 제작, 인플루언서 마케팅 등을 지원 받는다.

그동안 광주신세계가 ESG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한 곳은 '스폴골프'와 '바리에'다.

스포츠·골프용품 생산업체 스폴골프는 지난 2017년 광주신세계와 인연을 맺었다.

모든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며 높은 기술력으로 고객들로부터 인정받던 스폴골프는 ESG 경영 도입을 희망했지만 예산과 인력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

광주신세계 본관 6층 스폴골프 매장에서 직원이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광주신세계는 스폴골프의 잠재력을 발견, 경영지표 향상을 목표로 지난 2023년 4월 약 보름동안 ESG 교육과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했다. 이후 스폴골프는 온라인 매출은 전년 동기간 대비 74% 신장했다. 매출 향상 뿐만 아니라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대구점 등에 진출하며 판매망을 확대하는 데 성공했다.

지난해 6월 광주신세계 본관 지하 1층에 입점한 광주지역 F&B브랜드 바리에도 ESG 지원사업을 통해 성과를 거뒀다.

컨설팅을 받기 전 ESG 경영 관련 평가에서 39.5점을 받았던 바리에는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ESG 경영지표를 크게 개선, 최종적으로 92.1점을 기록했다. 이후 광주신세계는 바리에의 브랜드 홍보를 위해 지역 유명 인플루언서와 협업해 채널 마케팅을 지원했다. 그 결과 바리에의 지난 7~8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0% 넘게 향상됐다.

이동훈 광주신세계 대표이사는 "현지 법인으로 협력업체의 성장이 곧 광주신세계의 성장이라는 생각으로 협력업체 ESG 지원에 힘써왔다"며 "앞으로도 우수 협력업체를 발굴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 무역협회, 월마트 입점 지원

## 스타트업정키와 세미나 진행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는 18일 월마트 관계사 스타트업정키(아시아 대표 Louis Jin Diesel)와 지역 유망 소비재 월마트 입점 지원을 위한 세미나 및 1대 1 비즈니스 상담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광주·전남 소비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 마련됐다. 월마트에서 현재 수요가 있는 품목, 입점을 위해 준비해야 할 내용, 제품 소싱 시스템 등을 다뤘다.

1대 1 비즈니스 미팅은 광주·전남 대표 유망 기업 7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최근 미국 시장 내 K-Products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식음료 및 포장재 등이 주목받다. 또 다양한 한국 브랜드들이 미국 주류 유통망에 진입하고 있는 추세다. 이 가운데 지역의 웰니스 기업 이터나 보타니카(박슬아 대표)는 월마트 관계사와의 상담을 통해 파일럿 프로그램 참여 기업으로 선정, 향후 미국 시장 내 진출 가능성을 시험하게 됐다.

스타트업정키 관계자는 "월마트는 새로운 트렌드와 품질 높은 제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있다"며 "최근 미국 내에서 K-푸드와 K-라이프스타일 제품에 대한 수요가 크게 확대되고 있어 한국 기업들, 특히 지역의 역량 있는 중소기업들이 매력적인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

## 포스코그룹, 5년간 일자리 1만5000개 창출

### 올해 신규 채용 3000명으로 확대…공정채용 강화

포스코그룹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해부터 매년 3000명씩, 향후 5년간 총 1만5000명을 채용한다.

포스코그룹은 당초 올해 2600명 규모의 신규 채용을 계획했으나,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해 이를 3000명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2026년 이후에도 안전, AI, 연구개발(R&D) 분야 채용을 확대해 매년 3000명 수준의 채용 규모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채용 방식도 변화한다. 지금까지 일부 계열사를 중심으로 공채를 진행했지만, 내년부터는 그룹 차원의 공채에 참여하는 계열사를 확대해 더 많은 청년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광양=김귀진 기자 lkkjin@

## 삼성, 5년간 6만명 채용…반도체부품·AI 집중

### 채용연계 인턴·기술인재 채용 병행

삼성은 향후 5년간 6만명을 채용해 미래 성장사업 육성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나설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부품사업, 바이오 산업, 핵심기술로 급부상한 인공지능(AI) 분야 등에 집중해서 채용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삼성은 인재제일의 경영철학을 실천하고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기 위해 1957년 국내 최초로 도입한 공채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1993년 대졸 여성 신입사원 공채를 신설하고, 1995년에는 지원 자격 요건에서 학력을 제외하는 등 차별을 철폐한 '열린 채용' 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현재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19개 계열사는 하반기 공채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해 채용연계형 인턴제도와 기술인재 채용을 병행하고 있다. 청년들이 취업에 필요한 실무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대학생 인턴십 규모를 대폭 늘려 더 많은 학생들에게 직무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인턴십을 통해 검증된 우수 인력은 적극 채용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글로벌 기술력 우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마이스터고 졸업생과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 등 기술 인재 채용에도 앞장서고 있다.

2007년부터 전국기능경기대회 및 국제기능올림픽을 후원해 오고 있으며, 대회 입상자 1600명을 특별 채용해 기술인력이 인정받는 사회적 풍토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삼성은 직접 채용 이외에도 다양한 '청년 교육 사회공헌사업'을 펼치고 있다.

SSAFY(삼성청년SW·AI아카데미)는 미취업 청년들에게 양질의 소프트웨어 및 AI 전문 교육을 제공해 취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8000명 이상 수료생들이 2000여개 기업에 취업했으며, 누적 취업률은 85%다.

삼성은 또 2015년부터 자립준비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해왔으며, 2023년부터는 직무 교육을 추가해 경제적 자립까지 돕는 등 희망디딤돌2.0 사업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2023년 출범 이후 125명 중 64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2018년부터는 C랩 아웃사이드를 통해 창업 아이디어는 있으나 자금이나 사업 노하우가 부족한 삼성 외부의 유망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있다. 지금까지 540여곳을 육성했으며, 광주·대구·경북에서 C랩 지역 거점을 운영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 중이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광주은행은 18일 본점에서 고병일 광주은행장과 염규송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시 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위한 '따숨희망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광주은행, 소상공인 지원 10억 특별출연

### 광주신보와 '따숨희망' 협약…600억 특례보증

광주은행은 18일 본점에서 고병일 광주은행장과 염규송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시 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위한 '따숨희망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광주은행은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10억원을 특별출연했으며, 이를 재원으로 광주신보는 6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공급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광주시에 소재한 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로, 업체당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대출기간은 최대 7년 이내로, 광주은행 전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하다.

광주은행은 최근 5년간 광주신보에 총 121억5000만원을 특별출연해 306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대출을 공급하는 등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지원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이번 특별보증이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고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광주신용보증재단과 긴밀히 협력해 지역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 삼성전자, '8만전자' 탈환

## 코스피 또 최고치 경신

삼성전자 주가가 1년 1개월 만에 '8만전자' 고지를 밟았다.

18일 삼성전자는 전장 대비 2.94% 오른 8만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종가 기준 8만원대를 회복한 것은 지난해 8월 16일(8만200원) 이후 1년 1개월 만이다.

2021년 9만원대를 찍은 이후 2년 넘게 5만~7만원대 박스권에 갇혀있던 삼성전자 주가는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감에 상승 곡선을 그리기 시작해 지난해 3월 26일 장중 8만원대를 회복했다.

같은 해 7월 11일에는 8만8800원까지 오르며 '9만전자'에 대한 기대를 키웠다.

그러나 지난해 8월 미국발 경기침체 공포가 번지면서 주가는 속절없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하락세를 지속하던 주가는 지난해 11월 14일 장중 4만9900원까지 하락해 52주 신저가로 추락, '5만전자'마저 내줬다. 전날에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경계감과 트럼프 정부의 품목관세 우려에 8거래일 만에 반락했으나, 이날 시장 예상대로 미국 금리 인하가 단행된 이후 투자심리가 개선되면서 매수세가 다시 유입됐다.

한편 이날 코스피는 미국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 재개에 대한 기대감과 이재명 대통령의 국내 시장 부양 의지를 상승 재료로 삼아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했다.

11거래일 연속 상승 후 전날 하루 숨을 골랐던 코스피는 이날 전장보다 47.90p(1.40%) 오른 3461.30에 거래를 마쳤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